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음 10월 5일) 제16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구봉산의 늦가을... 사람을 유혹하다

3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자 가을을 재촉하는 단풍이 구봉산(1002m)을 진하게 물들이고 있다. 구봉산엔 국내 최장거리(길이 100m)의 구름다리(해발 740m)와 제4봉(해발 750m)을 잇는 길이 100m의 국내 최장 규모이자 중간 기둥이 없는 우주탑 현수교 방식의 설치가 돋보인다.

전북대병원 이한이 전공의, 우수구연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소아치과 이한이 전공의(사진)가 유아기 우식증과 우식예방에 관한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유아기 우식증에 대해 보호자들이 가지는 지식과 이러한 지식에 대한 습득경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보호자가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지식 및 정보를 얻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 전공의는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구강검진으로 인해 치과 내원 빈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치과에 조기 내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공의는 이밖에도 자녀의 구강건강에 대한 부모의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안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재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예산 편성, 제도적 개선 필요"

국가예산 지역편차 너무 크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호남은 전체 중 15% 반면 영남지역은 41%

호남권 SOC 사업비 비율 참여정부때보다 10.2% ↓

20대 국회에서 지역별 예산 차별 뿌리 뽑아야"

호남권 SOC 사업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 예산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 1,9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전체 예산 중 41%를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 지원한 예산은 637억원으로 전체 중 15%에 불과했다"며 "과거에는 SOC 분야 예산의 지역편중이 심했고 이후 특별교부세 등 교부금의 지역편차가 커졌는데 이제는 문화 분야까지 예산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을 보면 호남권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비 비율이 참여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 4.4%로 무려 10.2%p나 감소한 반면, 서울·수도권은 62.3%에서 72.5%로 10.2%p나 증가했다"며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 영남권은 51.2조원,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 때 감감이 예산이라고 불리

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역별 예산 차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2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잼버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빅이벤트 국제행사이고, 타 행사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 예산 부담이 없어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며 "개최지 결정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조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예산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삭감을 비롯한 관

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농식품산업 혁신방향 논의

전주시가 전주푸드 생산농가와 식품 가공 향토기업, 도시농업인, 소비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농식품산업 혁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전주시시장실에서 농식품산업 발전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전주농업 다들마당'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주시의 농식품산업 발전과 전문성을 살린 협력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농업다들마당 위원들은 앞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식품분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산·학·연·관 업무협력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을 협의함으로써 농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호남 외면' 박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주 출신 한광옥 내정

전북도민들 향한 '도발' ?

국무총리에 김병준 내정 이어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

더민주 도당 "지역 민심 호전 위한 급조된 인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전주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지역 민심은 더욱 싸늘하기만 하다. 임기 내내 전북을 외면했던 박 대통령의 이번 기습개각은 국민전환용물 타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승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그동안 철저히 외면됐던 호남 인사가 대거 중용된다는 것이다. 전주 출신인 한 비서실장은 김대

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경제부총리 임 내정자는 전남 보성, 국민안전처 장관 박 내정자는 영광 출신이다. 임기동안 전북은 물론 호남을 '쳐다보지도 않던' 박 대통령의 급격한 변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민과 전북 정치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또다시 불통인사를 강행했다"라며 "지역 민심 호전을 위한 급조된 인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인사는 지역 민심이 호전될 기미가 없자 해법 찾기를 위한 회유책으로 볼 수 있다"라며 "그동안 현 정부는 호남권 특히 전북권 인사 대량평책은 눈 뜨고 봐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한광옥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